점·선·면·색…추상의 미학, 시간의 결을 잇다

동곡뮤지엄-영은미술관 기획전…내달 28일까지

진양욱·진시영 부자 콜라보作 '가을 축제' 등 작가 15명 36점 선봬
회화, 미디어아트, VR…다양한 매체 아우르며 동시대적 의미 조망

아버지 진양욱 화백의 '늦가을'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진시영作 '가을축제'

박승순作 '정제된 이미지3'

남영희作 '시작'

신도원作 '움직이는 추상'

추상미술의 조형언어인 '점·선·면·색'을 중심으로 감각적 확장성과 동시대적 의미를 탐색하는 전시가 펼쳐진다.

보문복지재단 동곡뮤지엄은 오는 9월28일까지 영은미술관과 공동 기획한 전시 '점·선·면·색-추상미술의 경계 확장'을 개최한다.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VR까지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추상미술의 본질과 확장을 조망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번 전시는 2021년 영은미술관에서 선보였던 동명의 기획을 바탕으로, 당시 소개된 주요 소장품에 지역성과 동시대 해석을 더해 새롭게 구성했다.

수도권과 호남권을 포함한 국내 작가 15명의 평면 회화 28점과 영상 설치·VR 등 미디어아트 8점, 총 36점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김재관·남영희·박승순·박종규·박철·고 방혜자·배미경·유병훈·하명복·한영섭·홍순명·왕열·고 진양욱·진시영·신도원이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추상미술의 경계 확장'은 영은미술관 소장 평면 회화 20여 점과 신도원 작가의 미디어 설치작품을 통해 기하학적·비정형적·디지털 추상의 스펙트럼을 소개한다.

신도원 작가는 VR 작품과 영상 설치작품 3점을 선보이며, 회화와 디지털 기술이 만나 확장되는 감각 경험을 제시한다.

2부 '시간의 결, 잇다'는 진양욱 화백의 회화와 아카이브, 진시영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업으로 세대 간 예술적 대화를 조명한다.

이 섹션에서는 호남 화단을 대표하는 색채화가 진양욱 화백의 작품 8점과 화구, 사진, 앨범 등 아카이브 자료도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그의 아들인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의 영상 설치작품 5점이 나란히 소개된다.

특히 진양욱 화백이 1984년 작고 직전까지 작업했으나 미완으로 남은 유작 '늦가을'을 진시영 작가가 미디어아트로 재해석·완성한 콜라보 작품 '가을축제'가 눈길을 끈다.

3부 '추상 정원, 함께 빛다'는 야외 테라스에서 펼쳐지는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 점·선·면·색의 조형 언어를 바탕으로 바닥과 벽면이 하나의 거대한 추상 작품처럼 연출된다.

관객들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소망을 남기며 예술의 일부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릴레이 아트토크'에서는 기획자와 큐레이터, 관객이 함께 추상미술의 본질과 동시대성을 논의해본다.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전문 도슨트와 큐레이터의 해설로 작품 이해를 돕는다.

워크북을 활용한 점묘, 색채, 선의 리듬 체험 등 교육형 프로그램도 전시 기간 주말에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동곡뮤지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헌 보문복지재단 동곡뮤지엄 이사장은 "이번 전시가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의 감각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물빛과 색채로 담아낸 서정적 풍경

광주전남수채화협회 창립 25주년 기획전…내달 14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설상호作 '결을 품다'

맑고 투명한 색감에 투영된 남도의 자연과 이야기.

광주전남수채화협회가 협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오는 9월14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기획전을 연다.

'빛이 흐르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25명 작가가 참여해 저마다의 시선으로 삶과 풍경을 담아낸 작품을 선보인다. 2001년 창립된 광주전남수채화협회는 남도 수채화의 맥을 이어온 미술단체로, 매해 정기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시를 통해 예술적 교류는 물론 수채화의 대중화에도 꾸준히 기여해왔다.

투명하고 깊이 있는 색감이 돋보이는 수채화는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 작가의 감정과 우연의 아름다움이 교차하는 예술이다. 물의 양과 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색의 흐름과 레이어의 중첩에서 빚어지는 명암은 수채화만이 지닌 섬세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처럼 수채 기법은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그리는 이와 바라보는 이 모두에게 마음의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잉어,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푸른 달 등이 서정적으로 담겨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 내면의 정서가 물감과 종이 위에 은은히 물들며, 관람객에게 한층 풍부한 시각적 경험을 전한다.

/최명진 기자

초등부 임사랑·중등부 김나현·고등부 이소원 大賞

광주예총 2025 전국청소년공연예술제 성료

2025 전국청소년공연예술제 수상자들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예총 제공〉

㈔광주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광주예총)가 주최한 '2025 전국청소년공연예술제' 본선 및 시상식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문화예술도시 광주에서 청소년 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악·무용·연극·연예·음악 5개 부문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 230여 팀, 7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예선은 지난달 19일 비대면 영상 심사로 진행됐다.

본선에는 각 부문 1위로 선발된 15개 팀이 경합을 벌였고, 무대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시상은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시의회가 후원해 광주시장상, 광주교육감상, 광주시의회 의장상, 광주예총 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총 상금은 3천300만원 규모다.

대상은 초등부 임사랑(국악·목포백련초), 중등부 김나현(무용·숭의중), 고등부 이소원(국립전통예술고) 학생이 차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은 "예술의 도시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 최대 청소년 공연예술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